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교회설립 제 7주년 · 추수감사절 행사

오늘 감사찬양예배

다음 주일은 교회설립 제 7주년 기념주일 및 '98 추수감사절이다. 오늘 찬양예배는 교회설립 7주년기념 및 '98 추수감사 찬양예배로 드린다.

오늘 찬양은 가브리엘찬양대 주관으로 드린다. 찬양곡은 "하나님께 찬양드리세", "복 있는 사람들", "예전에 주가 가신 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등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곡을 연주하며 여성 합창 3곡도 함께 연주된다.

지휘는 허희철 집사이며 오르간은 안진희 선생, 피아노는 양경실 선생이 연주하고 독

창은 이수자 권사(소프라노)가 맡았다.

▶ 다음 주일엔

성찬식 · 감사예배 · 장로임직예배

감사예배로 드리는 I · II · III부 예배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며 감사헌금을 드리는 순서를 갖는다. 교회학교에서는 부서별로 감사와 축하의 시간을 갖는다.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는 제 4대 장로 임직식이 있다.

임직식에는 선물이나 증정하는 순서를 모두 생략하고 참가하는 성도 모두가 감사헌금을 드리는 순서를 갖는다.

금주의 비전2020운동

▶ 교회학교 노방전도(오늘 각 교회학교 예배 후)

- 2인 이상 노방전도 실시

▶ 비전2020특별새벽기도회(21일까지)

시간: 오전 5시 - 6시 강사: 이종윤 목사 주제: 제자도

▶ 24시간 연속기도회

오전 6시 - 오후 10시: 연속기도회 참가신청자

철야기도 담당부서 14일(주일) 제1·2권사회

15일(월) 장년부

16일(화) 소망부

17일(수) 새가족부

18일(목) 사랑부

19일(금) 스테반회,

운동본부 임역원

▶ 금요심야기도회(20일 오후 9시 - 10시 30분)

주력부대: 11·12교구, 루디아전도회, 중·고동부

스테반회

목회자세미나 · 성경대학 종강

16일(월)과 내달 6일(주일)에 각각 수료식

제 14학기 목회자세미나가 내일(16일) 서울 강남YMCA대강당에서 종강한다. 이번 학기는 지난 9월 7일에 개강하여 추석 기간을 제외한 10주 동안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었다.

내일 수료식에서는 14학기를 모두 수강한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네 학기를 수료한 목회자에게 수료증이 수여된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에 네 학기를 수강하고 수료하는 목회자는 총 42명으로 이들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동문회원이 된다.

제 1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는 "오늘의 위기와 내일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제 1교시(오후 2시 ~ 3시 30분)에는 이종윤 목사가 느헤미야서를 연구했다.

그리고 제 2교시(3시 50분 ~ 5시 20분)에는 한국교회의 위기와 민족의 미래,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교회와 목회', '신앙의 위기와 21세기 교회', '도덕적 위기와 국가의 위기', '국방의 위기와 안보', '가정의 위기와 교회의 역할', '경제적 위기와 교회의 사명', '정치적 위기와 통일 한국', '사회

적 위기와 교회의 역할', '교육의 위기와 내일의 희망' 등 현재의 위기와 희망있는 미래를 위한 교회의 대응 방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 특강이 있었다.

한편 이번 주간에는 9월 초부터 시작한 서울성경대학 루기반, 마태복음반, 요한서신반, 요나반, 욥기반(아담반)과 음악교실이 모두 종강한다. 서울성경대학의 수료식은 12월 6일(주일) 찬양예배시에 갖게 된다.

신임서리집사 교육 및 면담

1999년도 신임 서리집사 후보 면접 및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통보를 받은 서리 집사 후보는 가능한 시간을 택하여 교육은 3차 중 1회, 면담은 2차 중 1회만 참석하면 된다.

- * 교육 1차: 18일(수) I부 예배 후
2차: 18일(수) II부 예배 후
3차: 19일(목) 새벽기도회 후

- * 면담 1차: 21일(토) 오후 6시
2차: 25일(수) II부 예배 후

순례자 컬럼

시간은 흘러 가는데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창가에 스쳐 지나가는 전봇대를 보게 된다. 사실은 전봇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앞을 지나갔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갔다는 표현도 사실은 세월이 지나간 것이라기보다는 인생이 그 앞을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닐까. 세월이 가는 것인지 사람이 가는 것인지 분간키도 어렵지만 아무튼 금년도 벌써 11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 것을 보면 세월이 확실같이 날아가고 있다는 표현도 과장은 아닌 것 같다.

이같이 빠른 세월을 의미있고 보람있는 순간들로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은 후회와 허전함 밖에 남길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이다.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인지라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갈 길은 분명하고 주어진 시간도 한정되어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매순간이 뜻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사야 강해

바벨론의 심판

이사야 13장 9 - 22절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억울하게 하며 잔인하게 죽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 바벨론의 죄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공동집(common house)을 지은 것입니다. 이 집이 완성되어 이제 첫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전날 밤 그곳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화제가 난 그곳에 다음 날에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청교도들은 그 비를 맞으며 잤더니 위에서 한없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후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한 바벨론, 자기들이 유다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한 줄로 착각한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잔인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사 14:11, 사 47:8). 감사를 상실하고 교만에 빠진 사람, 사치하고 열락하는 사람, 자신에 대하여는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운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에는 또한 모든 죄 가운데 가장 악한 죄인 우상숭배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으로 별들을 섬겼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겼습니다(렘50:38).

그들은 교만하였고(사 14:12 - 13)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습니다(사 47:6).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는 후 180년이 지나 멸망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을 할 당시에는 메대와 파사와 같이 조그마한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200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체에 변동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10절). 인간이 아무리 대비를 해도 하나님께서 지축을 흔들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군사를 일으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체가 어떻게 된다는 말은 국가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이들의 독립을 시켜주었고 앗시리아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많은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수심으로 바벨론을 침략한 것입니다.

메대와 파사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바벨론을 침략할 때 총사령관은 파사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여호와와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밑가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돌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취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스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게 하리니...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굴흔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사 13:9 - 22)

이종운 목사



멸망은 인류의 마지막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빌이 어디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많은 학자들이 아라비아의 남쪽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오빌의 금이 얼마나 유명한지 예루살렘에서 오빌의 금을 사려면 적어도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오빌의 금보다도 사람이 더 희귀케 된다고 했으니(10절) 사람의 씨가 마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진동을 하고 땅이 흔들리니 바벨론에 살던 외국인들이 자기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며 온 가족이 노략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 선지자의 예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교만한 자, 자기 열락에 빠져 사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3. 바벨론에 내려진 두 가지 선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메대 사람들을 통해서 멸망시키셨습니다. 메대 사람은 오늘날의 이란의 한 부족을 말합니다. 메대는 히스기야 왕의 딸년까지는 나라가 없이 유리하던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앗시리아가

바벨론에 임하는 잔인한 심판 중 하나는 그 별을 그들의 자식들이 받는 것입니다(18절). 그러므로 심판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토설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지은 바벨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열락을 취하다가 갑자기, 철저히 망할 것이라는 선고가 떨어집니다(19 - 22절). 소돔과 고모라는 자연적 현상으로 멸망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바벨론에 내려진 또 한 가지의 선고는 바벨론이 황무한 곳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지은 궁궐에는 맹수가 득실거리고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며 심지어는 양도 치지 못하는 황폐한 곳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20 - 21절). 12세기 때부터 바벨론의 궁궐이 있던 곳은 완전히 폐허가 된 것을 역사 속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도 그곳에서는 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경고이며 이 나라와 교회에 주신 경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반열에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98주수감사절과 서울교회

설립 제 7주년 기념 음악예배의 찬양을 저희 찬양대가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교회적으로는 어느 때보다도 의미있는 새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첫 삼을 뜬 올해에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시종일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지휘자 선생님께서는 곡 선정을 위해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셨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시며 선두에서 정열적으로 지휘하시는 집사님을 따라 찬양대원 모두가 큰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막상 연습을 하면서 대부분

감사찬양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받은 복을 함께 누리고자

신용식 (집사, 가브리엘찬양대 부대장)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대원들에겐 찬양이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연습이 거듭될수록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은혜가 점점 충만해져서 대원들 마음에는 기쁨이 한가득 번져만 갔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원은 대부분 다른 찬양대에 비해 젊은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몇 달 동안 빠짐없이 황금같은 토요일 오후를 바쳐 연습에 할애하는 것은 참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찬양연습에 오려고 직장에서 조퇴한 대원, 중요한 약속도 시험공부도 뒤로한 채 삶의 최우선의 자리

에 이 일을 두고 찬양연습에 헌신한 대원들...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대원들의 식사를 위해 다투다시피 헌금하시고 일찍부터 나와 봉사하신 많은 집사님들... 하나님만이 그들의 수고를 아시고 갚으시리라 여겨집니다.

늘 넘치는 활력을 가지고 주 안에서 참 교제를 이루며 장래에 대한 큰 비전을 갖고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에 선하고 아름답게 드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와 기도의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찬양대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찬양할 때 영혼이 맑아지고 말과 행동이 정결해지며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듯, 오늘 우리의 찬양을 듣는 모든 회중이 그와 같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례길에서

올바른 청지기의 새 발걸음

김현자 (권사, 소망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난마와 같이 머리 속에 엉겨드는 게 무엇인가? 내 나이가 그렇거니와 주님 부르심이 멀지 않음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인이 부족하여, 미처 다하지 못한 사랑과 봉사는 차치하고, 잊고 지나친 수많은 일과 아쉬움이 자리를 차지하며 보람없이 마무리되는 성스러운 것이다. 내년으로 다짐을 넘기면서 자위할 밖에는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대신 주님 앞에 바치는 기도를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떠올렸다.

“높으신 곳에 계신 거룩하신 이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이 육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과 교만과 무절제, 또한 당신께 위배되는 모든 분노와 오염된 정신을 용서하소서. 다가오는 한 해에는 굳건한 반석의 믿음으로 자신을 이김으로써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게 하소서. 믿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뿐 당신의 이름을 방패로 진정한 의를 베풀게 하소서.”

성경은 내게 너무도 분명히 일깨워 주시고 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까지 이르러...” 라는 메시지는 곧 예수님이 같이 하신 내 교회로부터 발전하여 세칭 지구촌으로 묶인 온 인류의 복음화를 이룩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여기서 주지할 바는 바로 그 단계에 대한 합리성이다. 나를 비롯, 내가 묻혀 있는 곳의 정돈이 선행되어야 범위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 내 좁은 소견이다. 그곳이 어디인가? 내 신앙의 뿌를 묻을 곳, 즉 교회라는 것이다.

때때로 나는 교회에서 안타까운 적이 많았음을 고백한다.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로서 용서와 사랑이 미비할 때가 그런 때이다.

인간의 몸 되어 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자태를 감추시고 말구유에 오시사 미천한 목수의 아들로 지내셨으며 척박한 땅 유대에서 잔혹한 십자가 형을 당하시매 몸소 행하시고 보여 주신 그 분께는 진실로 우리의 모든 찬미란 찬미가 오히려 부족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사명을 제각기 안고 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끌어안고 봉사하고 희생하기를 주저해서는 아니된

다는 말이다. 더욱이 이를 의식해서 그치지 아니하고 실천에 옮기기를 힘쓸 때에 진정 그분의 거룩한 보좌의 영광을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성구에 합당할 것이다. 명분이 필요하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나 이 또한 어려운 일임은 도처에서 확인된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서는 자 과연 누구인가. 분명 표면상으로는 봉사로 회생이 거늘 자신의 어깨에 힘주기 위하여 혹은 자신의 평범한 이름 석자에 금칠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혹은 직분의 허상에 취한 것은 아닌지. 직분은 결국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의 무게를 더해가는 것이 거늘.

어쭙잖은 글을 써 내려가며 나는 내 자신이 말할 자격이 있는가 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아울러 심한 자책으로 주름진 얼굴에 눈물을 담는다.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교회 내 형제를 사랑하는 때문이다. 자성의 의미가 포함된 이 모자란 언어에 내 형제들이 알 뿐이라도 사랑을 더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더욱더 정진하는 겸손과 온유와 절제의 한 해를 열어가시게를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한다.

“형제여! 사랑합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제 3회 목회자 신학심포지엄 개최

1999년 1월 11일 ~ 12일까지 1박 2일간
김치동문회 주최, 한국교회갱신연구원 후원

제 3회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신학심포지엄'이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간 광림수도원(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소재, ☎ 0347-66-4917/8)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 동문회(회장 차정운목사)가 주최하고 서울교회 한국교회갱신연구원(원장 이종윤목사)이 후원한다. 주제는 "오늘의 위기와 내일의 희망"이다. 첫 날에는 이종윤목사

(서울교회)의 "오늘의 위기와 내일의 희망"이라는 주제에 따른 강연으로 시작하여 안형준 교수(명지대)가 "한국 경제와 미래교회",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멘탈의 개척교회 성공 전략"이라는 내용의 특강을 한다.

둘째날 새벽기도회는 이영호 목사(새순교회)가 인도하며 "목회자의 영성회복"에 대해 설교한다. 또한 류태선 목사(총회사회부 총무)가 "사회 불안과 교회의 대안", 이승영 목사(새벽교회)가 "21세기 새로운 목회 모형"이라는 제하의 특강을 한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회는 목회자신학

세미나 내학기를 수료한 목회자들의 모임으로 1994년 3월에 창립되었다.

현재 이 동문회는 한국교회의 연합과 갱신의 초석이 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거듭되는 목회자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고 교회갱신의 도전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른 목회를 위해 서로 격려하고 목양을 위한 자료들을 수집, 교환하고 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과 김치 동문회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의 참가대상은 목사와 전도사 등 전국의 목회자이며, 신청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회(02-3426-4236) 또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02-517-7651/5)으로 하면 된다.

등록비는 3만원이다.

1999년도 교회조직

▼교육위원회

교회학교	부장	지도
유 아 부	서문석	이영희
유 치 부	노송성	신미숙
유 년 부	김영준	이상진
초 등 부	윤봉준	이성득
중 등 부	최종시	민영수
고 등 부	김광신	김정현
대 학 부	오정수	박귀환
청 년 부	정병무	김정현(이만열)
장 년 부	노문환	김영한
소 망 부	왕경래	우심화
사 랑 부	하영수	조대영
새가족부	김상철	이순환
새가정부	김태기	박귀환

▼교구위원회

교구	지도
제1교구	이성득
제2교구	이성득
제3교구	이순환
제4교구	이순환
제5교구	민영수
제6교구	민영수
제7교구	김정현
제8교구	김정현
제9교구	박귀환
제10교구	박귀환
제11교구	박귀환
제12교구	박귀환

▼찬양위원회

찬양대	대장
가브리엘	노문환
할렐루야	김태기
임마누엘	이영기
베들레헴	성준경
호산나	황정임
시온	박두호
미가엘	윤봉준
글로리아	이영기

- ▶차량책임: 박두호
- ▶식당책임: 박철훈
- ▶헌금책임: 성준경(1부)
홍정호(2부)
박철훈(3부)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98 비전2020운동 태신자 명단

전도자	태신자
전용순	전용환 전미정 이종순 고혜주 이선희
이점숙	서명원 조문현
무명	던문창 김준실
원복순	이권호 이수혁 이은하 이수현 이진혁
고후덕	최재영 최환우 최상훈 강순주 최상아
박분옥	고기성 고기태 서정목 김선규 강보경
함송현	김천수

잃은양 찾기 운동 대상자 명단(청년부)
김기문 김지영 김형원 박상혁 이익창
박진현 김진희 이근일 박성준 송민선
윤광섭 주복순 최유신 송재은

1999년도 일꾼 모집

◇ 교육위원회와 찬양위원회에서는 1999년도에 봉사할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을 각각 모집한다. 봉사하실 분은 오늘 주보에 삽입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헌금함에 넣거나 교구 목사에게 문의하시면 된다.

◇오늘 점심식사는 노문환 장로 ..장정화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찬양의 시간이 매주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1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비전2020운동을 위해
2. 대학수능시험을 치르는 청소년들을 위해
3. 목회자세미나와 성경학교에서 배운 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